

연구보고서

『대학생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및 효율적  
금융교육 방법을 위한 정책연구』

연구책임자 : 박 신 윤  
소 속 기 관 : 현대경제연구원

2012. 12.

한국장학재단

# 제 출 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한국장학재단이 우리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12.

본 연구는 2012년 한국장학재단  
연구용역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 요 약

##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금융시장의 빠른 변화는 국가는 물론 가계 및 개인의 경제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안정적인 재무관리에 대한 위험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가 금융 산업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반면, 금융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더 많은 금융소비자로서의 역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금융환경 속에 살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국가는 물론 가계와 개인에게 있어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은 이제 혜택을 받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필수사항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금융에 대응하는 선진국 사례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수년간 선진 국가들은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특히 미국, 영국 등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금융이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각 대상에 맞춘 금융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금융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사회진출을 통해 곧 독립적인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며, 과거에 비해 복잡하고 폭넓은 금융환경에 직면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충분한 금융지식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조기 및 정규 금융교육의 경험 없이 곧 사회에 진출하게 될 대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대학생들의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대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체계 및 효과적인 방법 또한 그간 본격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어 향후 민·관·협 공조 하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全) 단계에서의 금융교육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금융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율적인 교육 방법 도출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학생을 위한 금융교육체계 및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방법을 포괄적으로 연구하되, 한국장학재단 및 학자금 대출 대학생의 측면을 고려한 연구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대학생 대상 금융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관련 문헌고찰, 국내·외 금융교육 현황 및 사례 조사, 수요자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등의 연구방법으로 실시되었다.

## 2. 금융교육의 개념 및 목표

현재의 금융교육은 경제교육, 재무관리교육, 금융소비자교육 등의 개념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금융교육의 내용이나 범위에 대해 뚜렷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금융교육의 표준화된 교육체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경제교육은 다소 학문적이고,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원칙이나 경제시스템 등의 이해를 통해서 '경제 이해력(Economic Literacy)'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성향이 강하다. 또한 금융교육은 신용교육, 금융이해력교육, 개인금융교육, 화폐관리교육, 금융·자산관리교육, 투자교육, 소비·저축교육 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모두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여기서의 '금융이해력'이란 금융과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활용능력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금융이해력을 금융 용어와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교육은 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이나 조직·사회, 국가 모두 나름대로의 금융교육의 목표가 필요하고 그 목표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만 한다. 금융교육의 목적은 '금융이해력 강화'를 그 기본으로 제시할 있으며, 단순 금융 지식이 아닌 금융생활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행에 목표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금융교육은 개인의 금융지식 및 정보 뿐 아니라 금융 지식(Knowledge)이 어떻게 금융 이해력(Literacy) - 금융 역량(Capability) - 금융 행동(Doing)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금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가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 3. 금융교육의 현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외의 주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도 금융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금융 교육의 국가 전략을 수립하여 정부차원의 체계

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시행 제정법 및 교육 표준안 개발, 금융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웹사이트 및 모바일 핫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이용하여 금융지식과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영국, 미국, 캐나다 등 많은 영미권 국가에서 행해지는 금융교육은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의 적극적인 금융교육 지원 참여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가장 큰 특징은 생애 교육의 개념을 도입하여 학습 대상을 특정하기 보다는 생애 사건(Life Event)와 그에 따른 대표적인 금융 의사 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금융이해력위원회가 운영하는 금융교육 사이트 <My Money>의 경우 대학 입학-취직-사업-결혼-주택마련-은퇴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별로 학자금 대출, 주택 구입, 보험 설계 등의 관련 의사 결정에 필요한 금융 정보와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지식전달 식의 플래시 콘텐츠나 동영상 강의 보다는 게임이나 퀴즈, 학습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창업 시뮬레이션 등의 참여형 프로그램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며,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계부나 계산기 등의 온라인 도구를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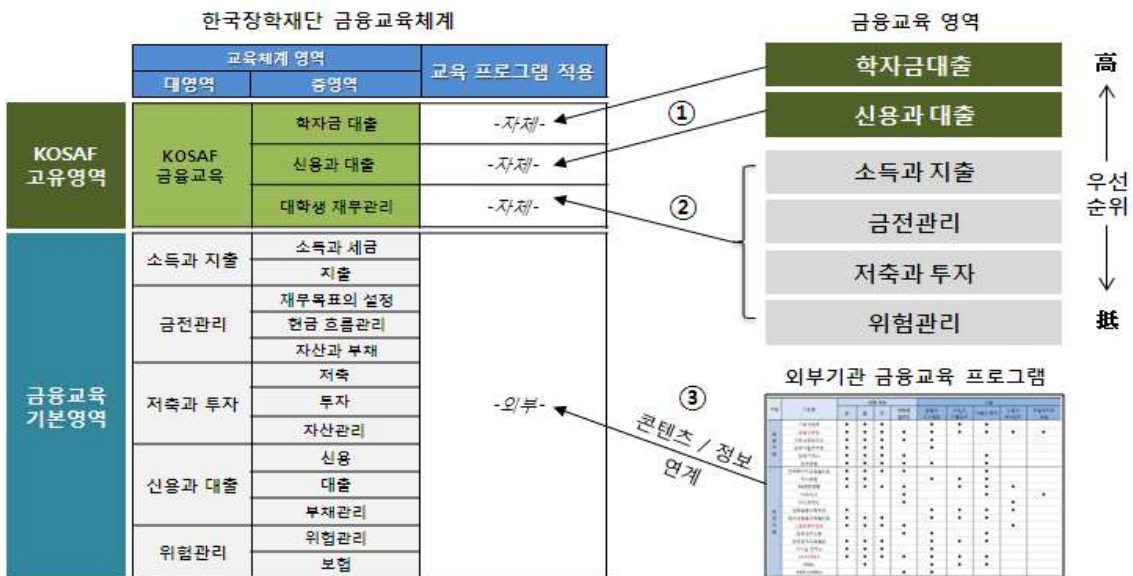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의 외환위기와 2003년 신용카드 사태를 겪으면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교육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는 2009년에 제정된 <경제교육지원법> 및 2010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교육 활성화 추진방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개발한 '초·중·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2010) 및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가이드라인'(2012)이 개발되어 금융교육의 기준 적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한 국내 금융교육 현황 조사결과 정부 및 금융관련 공공, 민간기관은 그 교육 대상을 초·중·고등학생 중심으로, 교육 내용은 경제교육과 저축 및 투자 영역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대학생 대상의 금융교육 및 신용 및 부채 관리 등의 교육 영역이 소외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국내의 금융교육은 아직은 주로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교육방법은 웹사이트를 통해 학습 대상자들에게 교육자료와 금융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프라인 형태로는 일일 금융 강좌의 개최 형태가 가장 많았다.

향후 국내 금융교육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국내 금융교육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며, 금융교육기관간의 통합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표준화된 금융교육체계를 통해 금융교육의 체계화 및 편중된 금융교육 영역의 개선과 다양한 금융교육 모델의 발굴이 필요하다.

#### 4. 금융교육 체계 및 프로그램 설계

본 연구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금융교육 개발을 위해 <KOSAF 금융교육체계 구성> 적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내외 금융교육 표준체계 검토, 금융교육 프로그램 조사, 수요자 조사, 재단 환경 및 특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대학생 금융교육을 고려한 5개 표준영역을 바탕으로 대학생의 기본적인 금융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47개 주제로 구성된 KOSAF 금융교육체계를 도출하였으며, 영역별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은 우선순위에 따라 도출된 <학자금 대출> 및 <신용과 대출> 영역의 금융교육주제들을 바탕으로 한국장학재단의 기본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대학생들의 금융역량 강화 및 졸업 후 대출금 상환을 위한 금융생활 및 금융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득과 지출 등의 영역들을 포괄한 추가 프로그램인 <대학생 재무관리>를 함께 구성하였다. 이는 나머지 영역의 각 영역별 핵심 주제 내용을 포괄한 대학생 재무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으로써, 우선 도출된 학자금 대출 및 신용과 대출 프로그램과의 상호 보완성 및 연계성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재단 자체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외부 금융교육기관들이 제공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들의 연계를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한국장학재단 금융교육체계 및 교육프로그램 구성

한국장학재단의 우선적인 금융교육 프로그램으로 검토된 <학자금 대출> 및 <신용과 대

출>, <대학생 재무관리>의 3개 과정은 향후 대학생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으로의 개발을 고려하여 과정별 교육프로그램 설계안을 수립하였다.

## 5. 금융교육 방법 검토 및 적용 방안

대학생 금융교육의 효과적인 교육방법 및 적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대학생들의 교육방법 선호도 및 국내·외 금융교육 방법 적용 사례 그리고 교육·기술 패러다임 변화 검토를 바탕으로 대학생 금융교육 방법의 적용은 온·오프 교육 방법을 포괄하고 상호 보완될 수 있는 방향성을 고려하였으며, ①집합교육, ②이러닝, ③스마트 러닝, ④기타 학습지원 도구의 4가지 방법을 중심으로 도출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통합적인 대학생 금융교육 지원환경 마련을 위한 KOSAF 금융아카데미의 개설이 필요하다. 대학생 금융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및 대학생 금융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안내, 재단 내·외부 금융교육 자원의 원활한 연계 및 관리를 위해서는 재단 금융교육 서비스를 위한 가칭 'KOSAF 금융아카데미' 사이트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고려된다.

둘째, 대학생 현장 밀착형 오프라인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금융교육 방법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 대학생들은 집합교육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집합교육을 통한 대학생 금융교육은 공개교육 및 방문교육 형태가 우선 검토될 수 있으나 기존 금융교육 현황 및 대학생들의 의견과 특성을 감안할 때 캠퍼스 방문교육 형태의 금융교육 추진이 요구된다.

셋째, 대학생 맞춤형 & 참여형 이러닝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적용되어야 한다. 금융교육 과정별 성격에 따라 교수·학습 설계전략을 차별화하고 학습 상호작용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이러닝 설계 및 개발이 필요하며, 학습자 스스로의 능동적인 학습활동이 포함된 참여형, 체험형 교육방법의 적용이 요구된다.

넷째, 교육 패러다임 변화 및 트렌드를 반영한 스마트 러닝의 연계가 필요하다. 스마트 디바이스의 등장 및 확대에 따라 스마트 러닝이 하나의 교육방법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금융교육에서도 활용사례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최근 재단도 모바일 웹 서비스를 시작하여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정보 및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이에 연계된 스마트 러닝의 적용이 효과적일 것이다.

다섯째, 교육과 연계한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재무관리도구의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

다. 교육 효과의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방법 다양화, 참여형 교육의 확대 등과 더불어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이후 또는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재무관리도구를 온라인(Web) 및 모바일(App) 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인 대학생들의 금융교육 요구와 특성을 감안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육방법에 대한 적용은 재단 금융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금융교육 제도 및 운영 정책 등의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금융교육 효율화 방안으로는 ①현재 학자금 대출단계에서 진행 중인 금융교육의 개선을 통한 효율화, ②외부 금융교육 협력 네트워크의 활용, ③금융교육과 상담·컨설팅 기능의 연계를 통한 대출 전·후 지원, ④금융교육 활성화 지원 제도 등의 검토 및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